

2023.9.1(금)	<b>현 지 정보</b>	북경사무소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

<b>제목</b>	<b>인민은행, 외화지준율 2%p 인하</b>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b>1</b>	<b>발표 내용</b>
----------	-----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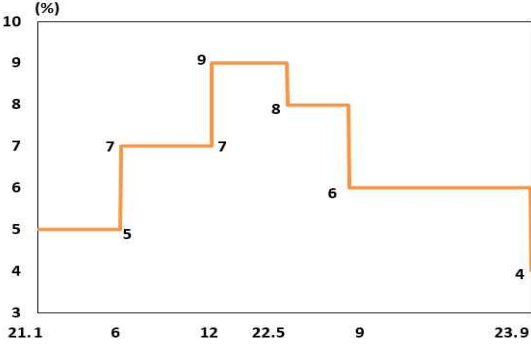
□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준비금비율(이하 '외화지준율')을 2023.9.15.일부터 2%p(6% → 4%)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음(9.1일 9시)

○ 외화지준율\* 조정은 2022.9.15.일 2%p(8% → 6%) 하향 조정된 이후 처음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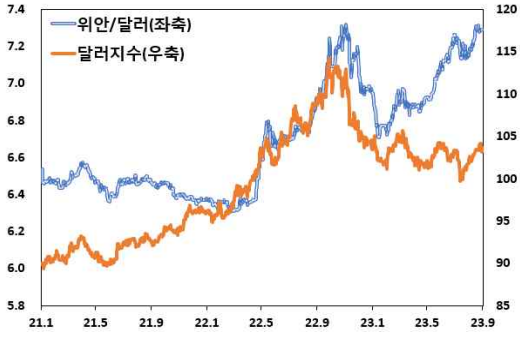
\* 금융기관의 외화지준율은 2005.1월 「금융기관외화예금준비금관리규정」 제정으로 3%로 통일된 이후 2006.9월과 2007.5월 각각 1%p씩 상향 조정되었으며, 202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총 4%p를 상향 조정(5% → 9%)한 뒤 2022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3%p를 하향 조정(9% → 6%)

□ 동 조치 발표에 따라 위안화 환율은 15시 현재 전일종가(7.29위안) 보다 +0.4% 절상된 7.26위안을 보이고 있으나 금일 인민은행 고시환율(7.18위안) 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

**외환지준율 추이**



**위안화 환율 및 달러지수**



자료 : WIND

○ 금년 들어 위안화는 리오프닝 이후에도 실물경제 부진, 미·중 갈등에 따른 수출입 둔화,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양국간 금리차 확대, 최근 부동산 시장 우려 등으로 인해 2022년말(6.95위안) 대비 4.3% 절하(시장환율 기준)된 상황

작성자 : 북경사무소 김승주 차장

## 2

## 시장 반응

- 금융시장에서는 금번 외화지준을 인하 조치를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지속(higher for longer)에 따른 자본유출 확대 우려, 실물경제 부진,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**위안화 약세 기대가 지속적으로 확산됨**에 따라 환율 안정을 위한 인민은행의 **시장안정화 조치**로 평가(东方金诚)
  - 시장참가자들은 금번 조치로 인해 **위안화 절하압력이 다소 완화**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외환당국의 미달러화 대비 7.3위안의 강력한 지지선을 재확인
    - 2023.7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잔액이 약 0.8조달러임을 감안할 때 금번 조치로 인해 약 160억달러의 **외화유동성이 시장에 신규 공급**될 것으로 추정
- 시장참가자들은 금번 **외화지준을 인하폭(2%p)과 인하시기에** 대해서 인민은행이 위안화의 **과도한 절하를 용인하지 않겠다**는 정책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(光大银行)
  - 최근 인민은행의 2/4분기 통화신용정책보고서(8.17일)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해볼 때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 및 위안화 평가절하(환율 오버슈팅 리스크)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**위안화 시장의 합리적인 균형과 안정**을 위해 인민은행이 **필요한 조치**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
- 외환금융시장에서는 ①리오프닝 이후 중국경제의 회복 지연, ②미 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기대와 자본유출 확대 가능성, ③최근 부동산 개발 기업, 신탁회사 등 부동산 시장 관련 리스크 등 약세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당국의 정책 의지와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